

화순군, 민선8기 미래 산업 키워드는 '의료'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전환 발판 최고 수준 메디컬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도모

화순군이 미래 산업 먹거리를 의료를 중점에 두고 지역의 신성장을 도모한다.

화순군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를 2010년에 지정받고, 20여 년에 걸쳐 꾸준한 투자로 신약개발 전주기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화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백신'을 3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3년에 백신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에 집중하면서 민선 8기 전반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지난 6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것이다.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는 그동안 화순군이 바이오산업에 쏟은 노력의 결실이자 화순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성과는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된 것이다. 화순은 화순백신산업특구 내에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간 1000여 명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외 바이오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과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로 선정되기까지 민선 8기 2년간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가진 바이오·백신 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의 정주 여건 확충에 노력했다.

먼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바이오메디컬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하 사업으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사업 기반 구축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의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 △혁신 신약소재



화순군이 신약 개발 등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사진은 2023년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화순군 제공

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실증 지원의 국가 지원사업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산업 단지 도약을 도모하면서 바이오 기업 유치와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시설 확충을 위해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국가가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서 전남 화순만의 차별화된 백신·면역치료제 첨단 신약 기술을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특화단지의 전략목표는 2034년까지

241만㎡(73만 평)의 단지에 입주기업 150개 사, 당해 매출액 3조4000억 원,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담고 있으며, 목표 실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중 전남도 지역공약과 연계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주력,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의 연계를 통한 혁신적인 치료법과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신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전국 중별 농구선수권대회 개최 영광군, 역대 최대 규모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제79회 전국 남녀 중별 농구선수권대회를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흥농초·중학교 실내체육관 5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전라남도농구협회, 영광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여 초·중·고 부와 남자 대학부, 여자 실업부 등 전국 138개 팀 25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이는 작년 132개 팀 참가규모를 갱신한 전국 남녀 중별 농구선수권대회 역대 최대 규모이다.

대회일정은 각 부별 예선을 거쳐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고,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경기일정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유튜브 채널 "KBA Live"를 통해서 편리하게 경기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유토피아 : 이상향을 꿈꾸다' 담양군, 9월 30일까지 전시

담양군 일원에서 열리는 '유토피아 : 이상향을 꿈꾸다' 전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강유 작가의 '치유의 숲'을 비롯한 야간조명 작품들을 추가로 선보인다.

특히, 관방제림과 담빛음악당에 추가 설치된 조명작품들은 담양의 야간경관과 어우러져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자극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전시는 관방제림, 담빛음악당, 역사문화공원, 담양문화회관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다미담예술구 갤러리동의 작품들은 8월 31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전시가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담양에서의 특별한 밤의 여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자카르타 70만불 수출계약 MOU 함평군 H-푸드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H-푸드 70만불 수출계약 MOU 체결에 성공하는 등 지역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힘을 내고 있다.

지난 26일 함평군은 자치단체 단독으로 참가한 이번 인도네시아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spitality Indonesia, FHI)에서 인도네시아 업체 J & I(대표 박현정)와 30만불, PT. MIRE IMDO UTAMA(대표 이기준)와 40만불, 총 70만불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카르타 지사장 이승훈)가 주관하는 한국통합관에서 이뤄졌다.

함평군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고품질 H-푸드 수출 경로를 확대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100원 빨래방 운영 사업자 선정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사업

나주시가 기부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운병태)는 최근 안상현 부시장 주재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고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 및 효율적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안 부시장과 시의원 등 내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선 2024년 기금사업으로 발굴한 '100원 빨래방 마을 공동 운영' 사업 운영자 선정 등을 심의했다.

이 사업은 세탁 여건이 열악한 마을 주민들의 청결한 일상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세탁·건조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자를 공모했으며 총 3곳의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신청자격, 설치장소 확보유무,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봉사단체 2곳을 사업 운영자로 최종 선정했다.

또 다른 기금사업인 '꿈나무 등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반영 등 2024년 나주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했다.

꿈나무 등지 조성사업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100원 빨래방 운영자 선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며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지난해 12월, 김한중 장성군수와 백종원 대표가 황룡전통시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전통시장,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용역 보고회

장성군 황룡전통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의장 및 의원, 상인회,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1964년 개장한 황룡전통시장은 장성을 넘어 호남권에서도 손꼽히는 5일 시장이다.

장성군은 황룡전통시장의 시설,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용역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6개월이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방송인이자 외식사업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산하 연구기관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9월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음식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 내년 3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황룡전통시장이 개선해야 할 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콘셉트 개발과 시설 활용 지침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기존 목조 장육의 활용에 대해 상인회와 장성군의회의 질의가 이어졌다.

넓은 목조 장육을 보수해 사용하는 비용과 새로 짓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측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장육이 황룡시장만의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황룡강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연구 용역이 황룡전통시장의 '제2의 전성기'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장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인회, 군의회,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